

겨울철 농가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 만전

전주시, 농·축·수산 분야 농가 월동준비 홍보·점검 실시

전주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농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설·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 분야 농가의 월동준비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주시역 2824여 농·축·수산 농가와 474개 주요 농축수산물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열장비 가동시 전기설비 및 주변 발화물질 제거 △대설대비 노후 시설하우스 및 축사 지주대 및 지붕 점검 및 보강 △노지작물 대상 부지포 등 피복자재 활용 보온 및 시설하우스 보온장비 점검 △과수목 동사 방지를 위한 보온재 감싸기 △축사내 적정 환기로 호흡기 질병 예방 △폐사축 확인시 즉시 신고 △양봉

벌통 보온덮개로 보온실시 △내수면 어업 한파대비 물고기 대피용 보온덮개 설치 등 겨울철 월동준비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 농·축·수산 분야 재해 관련 지원사업으로 총 19억 원을 투입해 1515여개 농가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과 축산농가 환풍시설 및 양봉 월동용 화분사료 등 겨울철 재해 예방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여기에 시는 올 하반기 추경으로 1억 8000만 원(보조 108, 자부담 72)을 투입해 올해 초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폐사 피해를 겪은 양병농가에 월동용 사료와 기자재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종성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축·수산 농가는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자연 재난 및 화재 등 발생시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도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놀이 가치 확산 위한 공모전 개최

전주시, 어린이 대상 그림일기·독후감 분야

전주시가 모든 아이들이 맘껏 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11월 한 달 간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의 가치를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림일기와 독후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어디서든 맘껏 놀았던 체험을 담은 어린이 그림일기와 놀이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도서를 대상으로 한 독후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놀이 가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놀이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도서를 읽고 느낀점 등을 적은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아호놀이전주 누리집(www.jonju.go.kr/yaho)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hyr353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36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작품의 창의성 등 공모전 내부기준으로 평가한 뒤 선정 결과를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놀 권리를 홍보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농업인 소득 향상 위한 온라인 판로 개척 돕는다

전주농기센터, 미디어 파머 양성과정 온라인 스토어 교육 운영

전주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스마트 스토어와 당근마켓 등 새로운 온라인 시장개척을 돕기로 했다.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오는 12월 7일까지 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전주시역 농업인 15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파머 양성과정인 ‘온라인 스토어’ 교육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스토어 교육은 지역 농업인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여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판

매를 늘려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네이버 서비스 플랫폼 이해하기 △스토어 입점하기 △상품 등록과 노출 잘되는 노하우 △스토어 관리 및 운영 △마케팅기법 △우리 주변의 당근마켓 성공사례 △비즈 프로필 준비 △단골 관리와 예약 △SNS 연동하기 등이다. 이와 관련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플랫폼 중 하나로 개인이 상품(스토어)을 개설해 운영 관리하는 소규모로, 개인 누리집 제작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수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당근마켓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소비문화로의 변화 추세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들도 당근마켓 비즈니스를 통한 직거래로 새로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도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정보화 기초 교육은 물론, SNS 활동실적 및 스마트 스토어 운영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심화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농업인들의 정

보화 능력 강화와 온라인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파머 양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4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생활속 모바일 활용교육과 SNS블로그 마케팅 교육 과정이 진행됐다. 김종성 전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급성장한 온라인 농식품 시장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새로운 홍보·마케팅 시장에 대한 농업인들의 감증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전주시 농가들이 소득 향상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가치를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우리들의 희망시상식’ 진행


세계시민교육 편지쓰기대회·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오아름)는 ‘2022년 굿네이버스 창의적 체험활동 세계시민교육 편지쓰기대회와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지역 시상식을 1일 진행했다. ‘2022년 굿네이버스 창의적 체험활동 세계시민교육 편지쓰기대회’와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북지역 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이다. ‘우리들의 희망시상식’은 대회에 참여한 약 10만여 명의 유아 및 초등학생 중 우수작 제출자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유아 총 101명과 초등 130명의 학생이 전라북도교육감상, 전라북도의회 의장상, 전주시장상, 군산시장·익산시장 등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유아, 초, 중, 고

등학교 재학 중인 297만여 명의 학생이, 전북지역의 경우 유아기관 374개 원 2만6,759명과 초등학교 216개교 7만 8,516명의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다. 오아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은 “전북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이 지구촌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대회 참여를 통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이 다양한 나눔 실천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 전북지부는 나눔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화재 예방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안전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화재 예방의 필요성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되고, 덕진구 소재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작은 1인 1작품, 4절지 크기의 손그림 형식의 포스터로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으로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주덕진소방서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주덕진소방서의 대표작으로 전라북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 출품 될



2022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공모대상	공모주제
도내 초등학생 누구나	전 국민 화재안전 공익대행
공모대상	형성할 수 있는 내용
2022. 11. 1(화) ~ 11. 27(수)	문 의
공모분야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화재예방 관련 손그림 포스터	063-250-4235
	전주덕진소방서

예정이다.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서는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핵의학과는 지난달 2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된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제6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 핵의학과, 우수학술기관 2회 연속 수상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제66차 추계학술대회'서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핵의학과는 지난달 2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된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제6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학술기관 선정 심사평가에서 전북대병원 핵의학과는, 전국의 유명 사립대병원을 제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이어 전체 2위로 평가 받아 우수학술기관으로 선정이다. 전북대병원 핵의학과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학술부문에서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술적으로 인정된 만한 연구 업적으로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상이기도 하다. 유희철 병원장은 “치료와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핵의학과 의료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의 미래 새만금